보도자료 ★ 9월 28일 (월)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기 관 명	신창여자중학교	학교(기관)장	정순영
배 포 일	2026. 9. 28.	담 당 자	하소안(070-4949-1091)
붙 임	사진(○), 영상(×)		

값진 땀방울, 빛나는 결실로! 창녕교육장배 육상·수영대회서 우수한 성과 거둬

궂은 날씨에도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 육상 종합 우승 및 수영 종목 1위 차지

신창여자중학교(교장 정순영)는 지난 9월 18일 열린 교육장배 육상대회와 9월 19일 열린 교육장배 수영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육상 종합 우승과 수영 종목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 체육활동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초체력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육상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에 매진하며 우승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우천 속에서도 빛난 육상 종합 우승

육상대회에서는 대회 당일 비가 내리는 등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육상 종합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기록과 결과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수영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으로 종목별 1위

수영대회에서도 학생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접영, 자유형 100m, 자유형 50m 종목에 출전한 학생들은 각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훈련과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회 당일에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으며, 각자가 출전한 종목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육상과 수영이라는 서로 다른 종목에서 학생들이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지도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지도교사 김00는 “학생들이 힘든 연습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우승한 경험을 넘어,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창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기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① 육상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한 신창여자중학교 학생들.

②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종목별 1위를 이룬 신창여자중학교 학생들.

경남교육 아이좋아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행정원 하소안(☎070-4949-1091)